



# 한반도 구석기시대 '마제' 사용

### 전남 장흥군 신복유적서 200여점 출토

타제석기(편 석기)는 구석기시대, 마제석기(간 석기)는 신석기시대 유물이다.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같은 역사 상식이 미처 알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장흥군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 유적에서 마제석기가 대량 출토돼 '마제석기-신석기 유물'이라는 등사를 여지없이 깨뜨렸기 때문이다. 관련 학계는 이를 세계고고학사의 기념비적 유적으로 보고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하는 등 흥분하고 있다. 조선대박물관(관장 이기길)은 29일 "2003년 7월부터 장흥군 장동면 복교리 신복마을 일대 8000여평을 발굴한 결과 후기구석기시대 대규모 삼림타에서 출토된 유물 3만여점 가운데 20여점이 마제석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토된 마제석기 명칭들. ①갈돌 ②근 총석기 ③이형석기 ④갈린 자갈 ⑤가 통자귀 ⑥마제돌집사기 ⑦수들

발굴된 마제석기 중에서는 먼저 나무를 다듬거나 큰 짐승을 해체할 때 쓴 '간돌 자귀' 2점이 눈에 띈다. 또 도토리 등을 갈 때 쓴 갈돌 1점, 흙이 파여 핏기를 빨거나 사는데 쓴 동근 흙석기 5점, 숟가락 2개, 기온의 마제석기와 형태가 다른 이형석기 1점, 완전히 갈지 않은 상태의 마제돌집사기 1점 등이 발굴됐다.

국내 구석기유적에서 마제석기가 제작 도구까지 함께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간노키(貫の木)일대 유적에 이어 두번째다.

이기길 관장은 "2001년 후기구석기 유적인 경남 진주 장물리에서도 마제석기인 '간돌 자귀' 1점이 발굴됐으나 당시 학계에서는 의아해했다"며 "이번 신복유적의 발굴로 구석기시대에 한반도에서 마제석기를 사용했음을 확실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복마을 석기의 제작연대는 서울대 기초과학교육연구 공동기원인 실시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1만8500~2만5500년전(중신연대 2만2000년전)으로 추정됐다. 고고학계는 3만5000~1만2000년전을 후기구석기시대로 분류하고 있다.

유물을 살펴본 한남대 역사교육과 한영관 교수

는 "일본에 이어 후기구석기시대에 마제석기가 나온 것은 세계 고고학사에 기록될 만하다"며 "일본에서 출토된 마제석기의 원류를 한반도와 연결시켜 볼 실마리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발굴 지도위원인 연세대 인문학부 백영철 교수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석기의 형태와 제조방법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드문 유적"이라고 말했다.

신복유적에서는 이같은 특이점 외에도 구석기시대 유적·유물 연구에 있어 몇가지 중요한 점이 발견됐다. 먼저 대규모 삼림타가 가깝지역(메이소 캄프), 사냥터, 연장만드는 곳, 음식 만드는 곳 등으로 나뉘어 발견됐다. 특히 국내서는 드물게 화덕자리가 6곳, 이 가운데 4곳이 밀집된 형태로 발견돼 당시 사람들이 자연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볼 가능성이 해운다.

또 타제석기로 만든 사냥 도구와 이를 만드는 연장을 국내 구석기유적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발굴

했다. 흙을 파는 데 쓴 '새끼가', 까을 날 연장을 만드는 데 쓴 '좁쌀날', 굽이 뾰족한 숟가락과 찹쌀찌르개, 식칼 모양의 칼, 가죽을 손질하는 데 쓴 밀개와 긁개 등이 그것. 좁쌀날을 때어내고 남은 좁쌀날뿔도 수정과 흑요석 재질의 희귀한 것이 수십점 발굴됐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붉은 색의 '철석영 자갈'이 개어진 채 출토됐다. 서양의 경우 철석영에서 추출된 적색 안료는 영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죽은 이의 무덤에 뿌려졌다.

이기길 관장은 "신복마을에서만 아직 발굴되지 않은 면적이 3만4000평에 달하고, 신복마을과 별도로 지표조사 결과 구석기유물이 출토된 인근 마을이 22곳에 달한다"며 "장흥·보성군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조선대박물관은 오는 6월20~24일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동북아의 후기구석기문화와 장흥 신복유적'이란 제목의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이 행사에서 신복유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타 다카시(稲田孝雄) 일본구석기학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베이징대 왕유핑(王幼平) 교수 등 국내외 고고학자 10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선복 서울대교수 등 10명이 토론에 참가한다.

광주-경주전자 gooden@munhwa.co.kr

## '2만5000년전 타제석기 이용' 상식 깨 일간노키유적 이어 세계 두번째 발견 국내 첫 붉은색 '철석영 자갈'도 나와

마라사회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찾아서  
문화일보·경희대 NGO 대학원 공동주최 특강  
⑥생명과 평화의 길

# 아시아서 '문예부흥' 일어난다

11세기기와 함께 '정보화' 문명은 '정조화' 문명으로 바뀐다. 창조화라는 것은 정보화의 내용 즉 콘텐츠웨어 중심으로 정보화가 리모델링된다는 것이다. '소스'(source), '리소스'(resource)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이터 중심에서 아이디어 중심으로, 비트 중심에서 창조적 발상량 중심으로, 컴퓨터 중심에서 콘셉터(conceptor) 중심으로 중심이동이 된다는 것이며, 문명과 국력의 중심이 경제력에서 문화력으로 중심이동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와 함께 한국의 경제적 잠재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와 문화콘텐츠산업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며, 한반도는 동아시아와 세계의 물류 중심,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 사이의 랜드브리지로 상승할 것이다. 물류(物流)와 함께 문류(文流) 중심, 전 인류문명과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문화융합의 중심으로 해방구가 될 것이다.

프랑스혁명과 러시아 10월혁명 등 다 실패적이

## 한국 중심 유·불·선 통합 '새 문명' 촉발 창조적인 '문화콘텐츠'가 세상 좌우할 것

다. 새정치와 새경제의 씨앗을 품은 새문화를 중심으로 세계적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야 하는데, 미적 교육과 상상력전환에 의한 그 대혁명이 한반도로 부터 서서히 시작되어야 하고 반드시 시작될 것이다. 그 혁명은 한국의 신세대와 지식인들에 의해 아시아 전 민족들과 함께 시도되는 아시아 고대 문예부흥으로부터 촉발될 것이며, 이 부흥은 이미 한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대응으로부터 촉발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와 동북아는 유림의 생태학과 생명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명학 또는 우주적 생명학을 창조할 것이며, 그것을 새 해석학으로 하여 새 문화로서의 '풍류(風流)', 새 정치로서의 '화백(和伯)', 새 경제로서의 '인사(仁事)를 재창조할 것이고 이것은 구미의 현존 문화와 민주-자본주의 정치, 경제와 더불어 이종적 상호작용을 새로이 시작할 것이다. 차원변화다.

지난 19세기 한반도를 휩쓸었던 통학과 정역(正易) 등 후천개벽사상이 새로운 생명학의 도인(導因)으로 부활함으로써 대문명사 전환의 원형을 제시할 것이다. 그 원형은 '공공적 태극(弓弓의太極)이나 '여율(呂律) 또는 '팔려사율(八里四律)이라고 불린다.

시간관, 공간관, 육체 또는 인간학이 생명학에 인간하여 새롭게 탐구될 것이며, 이 결과가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 '재진화'(re-evolution), '확증'(amplification) 등의 과학적 방법과 결합함으로써 새문명의 기초를 만들 것이다. 이



김지현(시인)

면접-전문기자 jmcry@9